

## 집단따돌림(왕따)-원인, 실태 및 대안-

김 현 수

한국학교보건협회 이사  
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정신과 교수

### I. 문제제기

청소년 비행·학교폭력 등과 함께 교내에서 특정인을 따돌리는 이른바 ‘왕따’ 현상은 새로운 청소년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일찌기 Havighust는 청소년기에 달성하여야 할 10가지 발달과업을 제시한바 있는데 이중 첫번째가 “남녀 동년배와 성숙한 관계형성” 이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연구자들은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십대 청소년들의 인격 형성에 중요한 기여요인으로 지적한바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도 “타인을 따돌리는 사람”과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 모두에게 왕따현상은 역기능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미주나 유럽을 대상으로 한 장기추적 횡단면연구결과(Olweus, 1994)에서도 초중고 학생들의 10% 정도가 또래로부터의 만성적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를 접할 때 교내 집단따돌림은 전세계적인 문제라 할 수 있으며, 학교가 더 이상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신문지상이나 상담사례 등에서 이러한 집단따돌림의 피해사례 등을 많이 다루고 있어 이것이 근간에 숫적으로 증가하고 따돌림의 방법이 전보다 집요하고 잔인해졌음을 알 수 있으나 과거에도 따돌림을 받는 학생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따돌림 현상이 또한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연구보고나 체험담을 접하였을때 군대나 직장과 같은 성인사회에서의 ‘따돌림 현상’ 또한 어렵지 않게 접할수 있으며, 심지어는 병원사회의 의료인과 같은 전문직종 내에서도 동료간 갈등과

집단따돌림 현상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내에서 벌어진 집단따돌림이 문제화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성인이 아닌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십대를 대상으로 한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이라는 점과, 차후 이로 인해 초래될 역기능적 결과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간 PC통신이나 생명의 전화 등을 통하여 수많은 피해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나 일선교사 및 관련부서 모두 이 문제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교내 집단따돌림(왕따)의 정의, 이론적 배경, 역사적 기원, 동기 및 원인, 왕따의 실태, 예방 및 대안에 대하여 폭넓게 기술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인식증대와 더불어 대안수립에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 II. 집단따돌림의 정의, 유형 및 역사적 기원

‘왕따’는 ‘왕따돌림’의 줄임말로 ‘왕따돌림’이란 표적이된 대상자에 대한 위협, 협박, 괴롭힘을 주는 행위 모두를 의미한다. 이러한 괴롭힘은 신체적이나 언어적인 것으로 대면상태에서 행하는 직접적인 유형과 사회적 매장과 같은 간접적 유형이 있다. 직접적 유형은 구체적으로 표적대상자에 대한 폭력행사, 공갈, 협박, 위협, 금품갈취 등을 들 수 있으며, 간접적 유형은 제3자를 끌어들이어 사회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정신적 괴롭힘을 주는 형태로 학생들은 이를 ‘은따(은근히 따돌리기)’라고 부른다. 교내에서 일어나는 집단따돌림 현상은 직접적 유형과 간접적 유형 두가지 형태로 모두 나타날 수 있다.

이와같이 여러사람이 집단으로 한 개인을 희생시키는 행동의 역사적 기원은 고대시대의 ‘속죄양(Scapegoating)’ 의식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속죄양(Scapegoating)’이란 남의 죄를 대신 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질병이나 정신질환과 같은 현상을 악마적 저주로 해석한 고대사람들은 특정인물이나 동물(속죄양)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집단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와같은 속죄양의식은 암암리에 21세기를 바라보는 아직까지도 여러사회에서 자행되

---

## 집단따돌림(왕따)-원인, 실태 및 대안.....

고 있다. 현대사회 - 그것이 학교든, 직장이든간에 - 에서의 속죄양현상은 집단구성원이 어떤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처리하지 못할때 집단자체의 문제를 한 특정인에게 투사시킴으로써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어떤 특정인에게 문제를 투사시키기 위해서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간에 남은 구성원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속죄양의 위치에 서게된 이른바 약자는 무력감과 사회적 고립감, 더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갖게 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주도한 압제자는 스스로를 우월한 존재로써 과대평가하게 될 것이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속죄양 의식으로는 히틀러에 의한 유대인 대량학살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속죄양 만들기가 결과적으로 얼마나 큰 비극을 몰고 왔는지는 역사를 통해서도 추적해 볼 수 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간에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삼자에게 문제의 원인을 투사, 전이시키는 속죄양현상을 통해 인간은 그간 개인적으로는 참을 수 없는 문제의식을 해결하고 집단의 단일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내 집단따돌림 현상을 볼때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집단의 문제와 갈등을 대변한다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양자 모두에게 정신적 황폐화와 역기능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Ⅲ. 집단따돌림의 원인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말하는 왕따를 당하게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즉 혼자 아는척하고, 이기적이며, 남을 무시하고, 믿음이 가지않고, 말이 없거나 소극적이며, 남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타지역에서 전학을 온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왕따를 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별 생각없이 장난삼아 한다거나, 상대방의 마음에 안드는 점을 고쳐주기 위하여, 타인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는 순으로 들었다.

결론적으로 집단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이유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또래집단과의 유사성이나 동질성이 또래관계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이러한 유사성에서 벗어난 한 개인에 대한 집단의 거부반응이 집단따돌림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집단내의 동조가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신사회적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집단동조압력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경우 집단따돌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집단이기주의가 집단따돌림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자신내부의 불안심리를 타인을 공격함으로써 완화시키려는 무의식적인 자기방어가 한 개인을 속죄양으로 만드는 집단따돌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 가정의 심리적 풍토와 부모의 양육방식 또한 집단따돌림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집단따돌림의 피해 학생이나 가해학생 모두에게서 역기능적 가정환경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집단따돌림의 피해학생의 경우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관성이 없었거나, 이혼 및 가정내 문제로 결손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이거나, 부모가 대화보다는 처벌위주로 자녀를 양육하여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부모가 지나치게 과잉보호하거나, 자녀의 교우관계나 단체생활 등에 대하여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모, 자녀의 교육문제나 진로 등에 자녀의 적성이나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강압적으로 자신의 주장만을 강요하는 부모 모두 자식을 따돌림 당하는 학생으로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반면 집단따돌림 현상에서 가해학생의 경우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이 적거나, 가정내에서 폭력과 폭언을 사용하여 일찌기 자녀에게 폭력성을 학습하게 하는 가정, 수용적인 가정분위기를 만들기 보다는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가정분위기를 조성하는 부모,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부모에게서 양육을 받아왔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 집단따돌림(왕따)-원인, 실태 및 대안.....

이러한 왕따현상은 학생들 사이에서 은따, 전따, 개따, 집따 등으로 또 분류되는데 여기에서 '은따'는 학급이나 학교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 '전따'는 전교생으로 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 '개따'는 개인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 그리고 '집따'는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따돌림은 상대안하기, 모함하기, 은근히 욕하기, 시비걸기, 도시락 같이 안먹기, 문구류나 숙제 숨기기, 장난을 빙자해 때리거나 가혹행위 하기, 심한 경우는 금품요구나 금품갈취 등으로 집단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경우 등이다.

한편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번 왕따는 영원한 왕따”라는 말이 난무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 그러나 따돌림의 원인을 지각하는 방식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데 따돌림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던 학생이 전학가서도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집단따돌림에 대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원인을 우리는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귀인이론이라 특별한 사건- 특히, 좋지않은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지각하는 방식과 관련된 이론이다.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한 아이는 “왜 나는 많은 아이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는가?”라고 자문할 것이다.

이와같이 부정적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생각하는 원인에는 2가지 차원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정성과 통제성이라는 개념이다. 여기에서 안정성이란 일어난 사건의 원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지 또는 변하지 않는지를 의미하며, 통제성이란 이 원인이 자신의 의지적 노력에 따라 영향을 받는지 또는 받지않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예를들어 낙제의 원인을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거나, 친구로부터의 따돌림을 자신의 타고난 신체적 결함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때의 원인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않는 것이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자신의 실패의 원인이 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노력함으로써 변화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원인이 개인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한 안정성과 통제성은 미래의 결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영향을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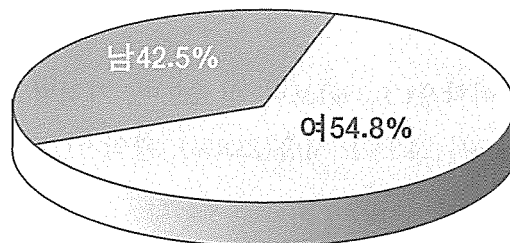
치게 된다. 자신이 따돌림을 당하는 원인을 신체적 결함이나 무능으로 탓을 돌리는 아이는 자신이 어찌다가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아이보다 앞으로는 자신은 계속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대하게 된다. 또한 이와같이 자신의 실패나 따돌림의 원인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들은 더 큰 수치심을 느낄 것이며 사회적 철퇴와 포기를 자초하게 된다. 반대로 자신의 노력부족과 같은 변화가능하고 통제가능한 원인때문에 자신에게 좋지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스스로 동기유발을 하게될 것이며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개입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귀인이론에 따르면 동료로부터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스스로 변화 시키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아이일수록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 상태에 남아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 IV. 집단따돌림의 실태 및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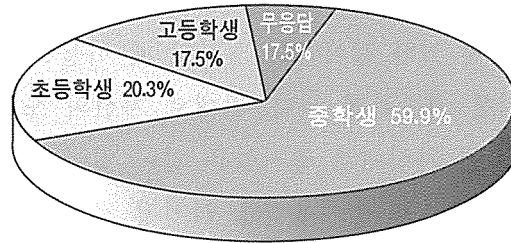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집단따돌림의 발생빈도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이루어진바 없으나 98년도 상반기 학교폭력에 관한 전화상담 요청자 342명을 대상으로한 일제단의 조사에서는 집단따돌림에 관한 상담은 148명(43.3%)으로 나타나 그간 우려하여 왔던 학교 폭력도 상당부분은 집단따돌림의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들 왕따 피해자 148명중 여학생이 54.8%(81명), 남학생이 45.2%(67명)로 왕따 현상은 남녀관계 없이 빈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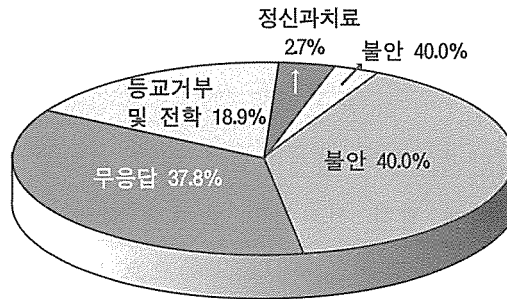


집단따돌림(왕따)-원인, 실태 및 대안.....

학교별로 보았을때는 이들 왕따 피해자중 중학생이 59.9%(88명), 초등학생 20.3%(30명), 고등학생이 17.5%(26명)로 중학생들에게서 집단따돌림현상이 보다 심각하게 나타났다.



집단따돌림을 당한 후 그 영향을 살펴보면 피해자중 40%(59명)가 불안을 호소하며 등교거부 및 전학요구가 18.9%(28명), 정신과치료를 받는 경우가 2.7%(4명), 자살시도가 0.6%(1명) 순으로 나타나 많은 학생들이 집단따돌림을 당한후 정신적인 문제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전국 57개 초·중·고등학생 6,8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새교육, 1999년 3월호)를 보면, 지난 1년간 집단따돌림의 피해를 보고한 학생이 24.2%였다고 한다. 피해가 가장 심한 집단은 중학교 (26.9%)이고 다음은 초등학교(25.1%)이며, 가장 적은 집단은 고등학교(21.3%)였다.

성별로는 남학생(28.2%)이 여학생(20.3%)보다 심했으며, 지역별로는 읍면지역(29.6%)이 가장 심했고 다음이 중소도시(24.0%), 서울(23.8%), 광역시(23.2%)의 순이었다.

## ..... 집단따돌림(왕따)-원인, 실태 및 대안

이상의 조사보고를 통해 볼 때 교내의 집단따돌림 피해학생이 상당수에 이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로인한 학교생활 부적응과 심리적 고통은 피해청소년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을 위협하는 또다른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집단따돌림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자살까지 생각하였다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더불어 외국의 집단따돌림 피해자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들이 우울증, 부정적인 자아상, 자살시도 등을 보였다고 하며 이러한 역기능적 성향이 성인기까지 계속되어 청소년기 이후의 삶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한 경우는 등교회피, 등교거부 및 성적부진 등으로 나타나 각 발달단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집단따돌림의 피해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집단따돌림의 피해사례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한 중학생의 가족이 가해학생의 부모와 학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 모중학교 2학년 X군의 부모는 “같은반 아이들이 아들을 이유없이 괴롭혀 정신질환을 앓게 돼 휴학을 하고 치료를 받았다”며 가해학생의 부모와 학교재단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한겨레신문, 1999년 4월 7일).
- (2) 1998년 3월 경북 경주시 소재 K여상에 입학한 L양 등 6명은 교내 폭력씨클을 결성한 선배 9명으로 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자 같은해 5~6월 각각 자퇴서를 내고 학교를 중단한 후 단란주점의 미성년자 접대부로 일해오다가 경찰에 적발 되었다. (중앙일보, 1999년 3월 27일).
- (3) 서울 마포경찰서는 1999년 4월 6일 모여중 3학년 김모양 등 10대 6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 하였다.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6시쯤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박모양 자취방에서 김양의 생일파티를 하며 밤새 술을 마시고 놀던 중 박양 등을 주먹으로 때려 각각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양 등은 초등학교 동창생인 박양 등이 재학시절 자신들을 무시하고 따돌리는 등 ‘왕따’로 만든데 대해 보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따돌림(왕따)-원인, 실태 및 대안.....

이상에서 기술한 사례에서와 같이 집단따돌림은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가져오고, 우울, 자기비하감, 폭력의 학습, 심한 경우 정신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두번째 사례에서와 같이 삶의 방향 자체가 빗나갈 수 있다는데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에게서 부모나 교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행동상의 특징을 기술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 . 무조건 전학을 보내 달라고 하거나 갑자기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한다.
- . 말수가 적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 . 아침에 학교에 가는것을 기피하고 자주 지각을 한다.
- . 학용품 및 소지품이 자주 없어지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많다.
- .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거나 남겨오는 경우가 많다.
- . 전화를 자주 하거나, 외부전화에 민감하며 전화를 받고난 후에 우울해한다.
- . 공책 등에서 “학교에 가기 싫다” “죽고싶다” 등의 낙서를 발견할 수 있다.
- . 머리나 배가 아프다고 자주 호소한다.
- . 전보다 용돈을 자주 요구한다.
- . 부모나 형제들에게 사소한 일로 화를 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 . 운동장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
- . 수업시간에 피해학생이 발표를 하면 일부 학생들이 웃거나 야유를 한다.
- .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가지 않으려하거나, 가서도 혼자 지낸다.
- . 수련회나 운동회를 참석하기 싫어한다.
- . 자주 주위학생들의 눈치를 살피고 친한 친구가 없다.
- . 아무도 짝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V. 예방 및 대책

집단따돌림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 학교, 사회가 협력하여 일관성있게 대처하여야 한다.

가정, 학교, 사회 및 청소년 자신이 집단따돌림을 예방 또는 극복할수 있는 방안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가정

-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관성이 있으며 애정으로 대하고,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평소 가정내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가족원중 특정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는 않았는지 검토한다.
- 가정내에 어떤 형태로든 폭력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거나 또는 폭력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분위기는 아닌지 검토하고 만약 그렇다면 이를 개선하도록 한다.
- 부모와 자녀가 잦은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이나 또래관계에 관심을 가져야하며 필요시 교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학교와의 공조체제로 문제해결을 하도록 한다.
- 자녀가 집단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때 지나치게 흥분하여 이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성숙한 자세로 문제해결에 임하도록 한다.
- 평소 자녀에게 사회기술과 유연한 대처능력을 갖도록 교육하고 부모자신이 역할 모델이 되어주어야 한다.

### 2. 학교

- 교사는 끊임없이 집단따돌림 문제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판별법을 터득하여야 하며 이들을 조기에 판별함으로써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나 교육부 차원에서 교사 연수프로그램이나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
- 성적위주, 입시만능에 치중한 교육에서 벗어나 인성교육과 생활교육에 많은 시

집단따돌림(왕따)-원인, 실태 및 대안.....

간을 투자함으로써 '함께 사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위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 집단따돌림의 가해자가 될 위험성이 있는 학생과 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파악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교사자신이 특정학생에게 편중된 관심을 가지거나, 또는 집단따돌림을 대수롭지 않은 일회적 사건으로 경시함으로써 집단따돌림 현상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한다.
- 필요시에는 학부모 또는 관할부서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시도한다.
- 교원충원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로 학교교육 자체가 집단따돌림 현상에 대하여 교육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회

- 성인사회 자체가 경쟁주의와 능력위주에 휘말려 부유한자, 강한자가 약한자를 짓밟고 따돌리는 폭력문화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한다.
- 교내 집단따돌림은 가정이나 학교뿐만 아니라 행정관할구역내 관련부서에까지 연대책임을 두어 범사회적인 대책수립을 강구하도록 한다.
- 지역사회내의 종교단체, 사회교육기관 등이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한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나 오락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집단따돌림 예방에 동참하도록 한다.
-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함께 극복하여 나가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 자체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역할모델이 되어 주어야 한다.

4. 피해학생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은 대부분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를 감추거나 태연한척 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스로 이 문제를 교사나 학부모에게 상담하는 적극적 자세를 갖도록 한다.

-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가 자기자신 때문이라는 자포자기적 생각을 갖지 말도록

하며 적극적인 원인탐구와 대안모색에 나서는 유연한 사고를 갖도록 한다.

## VI. 맺음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따돌림(왕따)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집단따돌림 피해 보험상품까지 등장하였다는 것은 진정 우리 사회의 비극이다.

또한 학교가 더이상 학생들에게 긍정적이며 교육적인 경험만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슬픈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들은 과거보다 예측불허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기성세대는 속수무책인 경우도 많다.

수많은 문헌에서 일찌기 학교에서와 같은 사회적 제도에서의 소외현상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문제행동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또래관계가 이후의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단 따돌림이라는 사회문제는 오늘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 여파는 보다 심각할 수 있다.

우리는 성장기의 또래관계가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사회적 발달에 주요 역할을 하며, 특히 집단따돌림과 같은 또래 관계에서의 문제는 부적응적 행동과 정신적 황폐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실제 정신과를 방문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따돌림과 같은 또래관계에서의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집단따돌림과 정신과적 문제중 어느 것이 선행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는 명백히 알 수 없으나 이 두 요인간에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개인을 따돌리는 인간의 심리적 요인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보다 효과적인 대안수립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

집단따돌림(왕따)-원인, 실태 및 대안.....

참고문헌

Linda Louise Stafford(1977). Scapegoating. American journal  
of Nursing, March, PP406-409.

Wilkerson, J, Protinsky, H.O., Maxwell, J.W. & Lentner, M(1982).  
Alienation and ego identity in adolescents. Adolescence  
XVII (65): 133-139

박경숙(1999). 학생의 왕따(집단따돌림 및 괴롭힘)현상.  
새교육 99년 3월호, PP.118-128.

Roff. JD (1990). Childhood Peer rejection as a Predictor  
of young adults' mental health. Psychological Reports  
67: 1263-1266.